

日수출품 규제 묶여 국내 판매 못해 PE부상교 실내 아니면 못 만들어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악순환

‘미생물 발효 액상 소멸방식’의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생산하는 광주의 A기업, 물리적 처리(갈·맷돌로 가는 방식)가 아닌 생물학적 처리 신 기술을 인정받아 일본에 수출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판매를 할 수 없다. 물리적 처리의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11년 환경부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회신까지 받았지만 관련 기준 미비로 소비자에게 다가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어민용 PE부상교(물에 뜨는 다리)를 만드는 전남의 B기업, 부상교의 크기 특성상 완성품을 차로 운반할 수 없어 공장에서 자재를 납품현장 인근에 옮겨 제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직접생산자기준은 실내(공장)가 아니면 제품을 제작할 수 없

중소기업 ‘손톱밀 가시’ 이것만은 뽑자

다. 결국 지난해 실외에서 부상교를 제작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해경으로부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인터뷰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의 ‘손톱 밀 가시’를 수집한 결과 17일 현재 8건, 전국적으로는 총 222건이 접수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겪는 설움을 ‘손톱 밀 가시’

라고 칭하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조치였다.

접수된 사례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현장의 청년층 인력부족과 함께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다. 규정 미비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한 제조업체 사업자는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다”며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3D 현장은 찾지 않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는 “원자재와 전기

료 등 생산단가는 나날이 올라가는데 납품단가는 수 년째 멈춰있다”며 “이 기회에 ‘가시’가 아닌 ‘대못’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측은 광주의 800여 제조업체 중 70% 이상이 대기업 하청업체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전했다. 일례로 대기업의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설비를 늘리면 다음해 물량을 줄이고, 기술 숙련도를 이유로 단가를 후려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도 대기업 관계자가 끼어있으면 수 십명의 하청사업자들이 피해를 우려해 침묵으로 일관, ‘상생은 아직 멀었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사연을 계속 접수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의 중소기업은 9만2951곳, 전남은 11만448곳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해수부, 수산道 전남에”

道 인수위 건의서…부산·세종시 등과 유치전

전남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부활 발표에 따라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해수부 유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남을 비롯한 부산, 세종시, 인천 등지의 지자체간 해수부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17일 “해수부가 부활하면, 전남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이날 인수위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해수부 유치를 문서 등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지역의 유치 경쟁 등을 감안해 전남도는 그동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왔다.

도는 이 건의서를 통해 “바다면적이 2만6450km로 전국 37%, 해안선은 6475km로 전국의 46%, 갯벌은 1037km로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도 전국의 41%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에 해수부가 와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해양 분야에서도 전남은 국가어항 31개소(전국점유율 28%)를 비롯, 지방어항 91개소(32%), 연안항 11개소(38%) 등의 어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66개소의 뛰어난 해변과 다도해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도 알릴 계획이다.

도는 현재 해수부 전남 유치의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가 제반 해양수산 여건이나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건의서 제출 이후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해양·항만물류 중심지’, 인천은 ‘대 중국 교역 감안’, 세종시는 ‘정부 부처의 효율성’ 등의 이유를 내걸고 해수부 유치를 뛰어든 상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꽁꽁 얼어붙은 분수대

강추위에 17일 장흥 우드랜드내 분수대에 흐르던 물이 그대로 얼어 빙벽으로 변했다. 광주기상청은 18일 해남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다가 오후 부터 풀려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신창동 유적지 조성사업

18년째 땅도 다 못샀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가 국가 사적지정 20년을 넘겼음에도 본격적인 유적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은 18년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5호인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사유지 12만6144㎡)에 대한 부지매입에 나서 올 현재까지 매입표표 토지의 93%를(11만 7878㎡)를 샀었다. 지난 1995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무려 18년이 걸린 셈이다. 이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유례가 드문 경우다.

신창동 유적지는 초기 철기 시대인들의 생활과 생산, 무덤의 실상을 알려주는 국내 대표적인 복합 농경유적이다. 지난 1992년 9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5호로 지정된 이래 모두 9차례 발굴에서 탄화미(炭化米·불에 탔거나, 지층 안에서 자연 탄화되어 남아 있는 쌀), 수레바퀴, 비단, 가야금 등 유물이 쏟아졌다.

시는 이곳에 유물전시관을 세우는 등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유적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짚짚 예산’에다 토지 소유주들이 땅을 파는 것을 꺼려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억3800만원(문화재

청 8억6700만원·광주시 3억71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6억8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다. 해당 부지를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월액을 포함한 올해 예산 14억9000만원 등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잔여부지 8266㎡에 대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여전히 부지 매입가격이 낮다며 매매를 꺼리고 있어 부지 매입 완료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낙 사들여야 하는 유적지 면적이 방대한 데다 토지 소유주들과 매매협약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부지 매입률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랑의 온도탑

광주 100도 돌파

1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이 동구 금남로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수치를 100.5도로 올리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에서는 ‘희망 2013 나눔캠페인’의 목표금액인 25억8000만원을 웃도는 25억9331만원이 모금됐다. 반면 전남은 54억2000만원(목표액 62억2000만원)을 모아 87.1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99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눔의 손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수기자 jeans@



MUSEO

이탈리아에 가지않아도...

서울 강남에 가지않아도...

광주에서 만나는 고품격 이태리 명품가구!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입니다. 중세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던 기품과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가미해 제품의 가치를 한껏 높인 것이 특징이며 유럽 정통 클래식 스타일이면서 한국적 정서와 환경에 잘 어울린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농성역 5번 출구 앞)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